

# 문화적 유사성, 젊은이들의 '쿨' 한 감성, 공감대 형성

## 침체 빠진 한국 소설, 자성과 분발 요구 목소리도

최근 드라마, 영화, 가요 시장에 부는 '한류韓流' 바람이 거세지만 소설 분야에선 '일류日流'가 강세다. 그 선두에는 무라카미 하루키, 에쿠니 가오리, 요시모토 바나나 등이 있다. 1989년 출간된 《상실의 시대》는 하루키 붐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약 50만 부가 판매됐다.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가 함께 쓴 《냉정과 열정 사이》는 2000년 초판 발행 이후 약 80만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은 1999년 출간 이후 약 25만 부가 팔렸다. 2005년 6월 교보문고 집계 소설분야 베스트셀러 100위에 일본 소설은 27종이나 올라 갔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남녀 작가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쿨한 느낌을 주는 순애보가 독자들과의 호응을 얻었고 동명의 영화를 기폭제로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에쿠니 가오리 소설을 내고 있는 소담출판사의 이장선 차장은 "불온하고 불안정한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타인의 사랑과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용적 태도가 가오리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발간된 가오리의 《도쿄 타워》는 지금까지 약 11만 부가 판매되었고, 다른 책들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을 펴낸 민음사 문학팀의 이소연 씨는 "바나나는 일본내에서 인지도도 있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라며 "국내에 꾸준히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어 차기작을 기

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책이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 문학성·대중성 겸비, 가벼운 청춘물·특정 작가 치우쳐 지적도

무라카미 하루키는 에쿠니 가오리, 요시모토 바나나에 앞서 일본 소설 붐을 일으킨 작가다. 하루키 소설을 펴내고 있는 문학사상사 편집부 정종화 팀장은 《상실의 시대》의 인기비결에 대해 "애뜻한 사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현대 젊은이들의 상실감과 자이를 찾고자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풍속도를 그려냄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근작 《해변의 카프카》와 《어둠의 저편》도 연간 10만 부 이상씩 팔렸다.

정 팀장은 일본 소설이 각광받는 이유가 '일본과 한국의 문화·사회적 유사성'에 있다고 했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소비 세대들답게, 이념이나 시대라는 무거운 주제 대신 담담한 문체로 개인적 감수성을 살린 소설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색채나 마니아·키치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간직한 부분들도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과 맞아 떨어지죠."

지난 12월엔 공지영과 츠지 히토나리가 함께 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전 2권, 소담출판사)이 발간되어 화제가 되었다.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순수한 사랑을 담은 이 작품은 '한·일 우정의 해' 기념작으로 최근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올라 있다.

현재 아쿠타가와, 나오키 등 일본의 대표적 문학상 수상작들은 거의 한국에 소개되고 있다. 출판 관계자들이 말하는 이들 일본 소설의 강점은 '문학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과 관심사를 다뤄서 감정이입이 쉽고,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해서 쉽게 읽힌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엔 인기에 편승한 가벼운 청춘물의 범람과 특정 작가와 장르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일본 소설붐 속에서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소설에 대해 자성과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취재 김지희 기자

